

기름값 고공행진 서민 허리 휨다

3주 연속 상승...각각ℓ당 10원·26원 올라 '사상 최고'

이상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에 거의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7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10월 첫째주(2~6일) 전국 주유소에서 팔린 휘발유 평균가격은 ℓ당 1천556.59원으로 이전 마지막 조사였던 9월 셋째주 대비 10.94원이 급등했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 9월 첫째주 1천535.22원을 단기 저점으로 3주 연속(조사기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주 휘발유 가격은 사상 최고치였던 지난 7월 넷째주의 ℓ당 1천557.38원과 불

과 0.79원밖에 차이하지 않고 있다.

9월 셋째주 조사에서 1천308.27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경유도 이번 주 26.76원이나 급등하며 1천335.03원으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국내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은 국제 제품가격과 원유가가 동반 강세를 보인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도입 원유의 기준가격인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도 주간 평균으로 9월 첫째주 70.09달러에서

넷째주 75.71달러로 치솟은 뒤 이번 주 73.49달러로 소폭 진정됐다.

국내 기름값은 원유가는 물론, 싱가포르 제품 현물시장 가격에 연동되고 있으며 통상 2주 가량의 시차가 반영돼 그 영향이 10월 첫째주에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관련 한 시민은 "휘발유와 경유에 포함된 유류세가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서민들의 부담만 커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세수 확보만을 이유로 유류세 인하를 미루고 있다"면서 "서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유류세 인하 등 조치가 시급히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kwangju.co.kr

휘발유값
1,556원
경유값
1,335원

추석연휴 뒤 국내 소매 기름값이 또다시 천정 부지로 치솟고 있어 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들의 가계에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경유값이 추석 연휴 전주에 이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데 이어 휘발유값도 10월

올 폐기지폐 10조 넘을 듯

만원권 기준 에베레스트 높이의 11배

■ 화폐 폐기량 현황

년도	은행권		주화	
	폐기액(백만원)	폐기물량(백만장)	폐기액(백만원)	폐기물량(천장)
2002	59,601	944	424	6,429
2003	59,660	945	722	11,478
2004	65,697	1,062	990	15,470
2005	57,623	1,002	957	14,695
2006	59,764	1,026	1,278	20,592
2007.1~7월중	64,853	958	1,009	15,833

올들어 7월까지 폐기 처리된 지폐가 6조5천억원어치에 달하고 있어 연말까지 1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폐기된 지폐 물량은 10억장에 육박하며, 이는 5t 트럭 211대 분량에 달한다.

7일 한국은행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7월까지 폐기된 은행권 금액은 총 6조4천85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벌써 작년 한해 폐기액 5조9천764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월 평균 폐기액은 9천266억원으로, 산술적으로는 연말까지 11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추산이 가능하다. 올해 지폐 폐기액이 급증한 것은 소비자들의 사용 부주의와 함께 올 초 발행된 1천원과 1만원권 신권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한은의 적극적인 구권 폐기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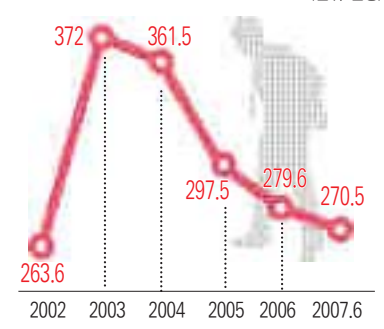
만원권을 기준으로 길이는 15만4천238km로, 이를 일렬로 늘어놓을 경우 경부고속도로를 180회 왕복할 수 있으며 가지런히 쌓을 경우 높이는 10만590m로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산의 11배에 달한다.

/연합뉴스

신용불량자 줄었다

6월 현재 270만 5,000명 신용위기 이전 수준 감소

■ 최근 5년간 금융채무불이행자 현황 (단위:만명)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계속 감소하면서 마침내 신용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7일 재정경제부가 대통합민주신당 문석호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는 모두 270만5천명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9만1천명 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생산가능인구 대비 금융채무불이행자 비율은 2002년 말 7.7%에서 2003년 말 10.9%로 상승한 이후 2004년 말 10.5%, 2005년 말 8.6%에 이어 지난해 말에는 8.1%까지 낮아졌다.

여기서 생산가능인구는 통계청에서 매년 7월1일을 기준으로 만 16~64세 인구를 추계한 것으로 2002년 3천410만3천명, 2003년 3천428만5천명, 2004년 3천442만8천명, 2005년 3천453만명, 2006년 3천471만5천명, 2007년 3천491만2천명 등으로 집계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가장 최근 통계로는 신용불량자가 270만명 아래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신용위기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2002년 수준으로 떨어진 셈"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스모키 화장으로 멋 내세요

광주신세계는 7일 백화점내 'MAC'매장에서 올 가을 유행하는 스모키화장법을 선보였다. 스모키화장은 짙은 색상으로 눈매를 깊게 하는 섹시 화장법. 올해는 예년보다는 진하지 않아 다소 가벼운 듯한 느낌을 주는 '세미 스모키' 화장이 인기다.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신세계는 7일 백화점내 'MAC'매장에서 올 가을 유행하는 스모키화장법을 선보였다. 스모키화장은 짙은 색상으로 눈매를 깊게 하는 섹시 화장법. 올해는 예년보다는 진하지 않아 다소 가벼운 듯한 느낌을 주는 '세미 스모키' 화장이 인기다.

(광주신세계 제공)

소액도 6개월 연체뎀 카드 정지

(5만원 미만)

국민은행 대상 확대... 소비자들 주의 요구

5만원 미만 소액이라도 장기간 연체할 경우 신용카드 거래가 정지될 수 있어 고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달 28일부터 KB카드(KB비씨카드 포함) 또는 카드론 연체대금이 5만원 미만이라도 6개월 이상 미납할 경우 카드거래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연체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고객별 평점과 신용등급에 따라 카드거래를 일시 정지했지만, 이번엔 5만원 미만 소액 장기 연체자에까지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연체대금이 소액일 경우 고객 편의를 고려해 거래제한을 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소액을 장기간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고객이 카드 사용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카드 유용 및 도난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KB카드 회원 약 900만명 가운데 소액 장기 연체자가 5천명 가량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연체사실을 통보받은 뒤 담력이 아닌 며칠 지나서 연체금액만 입금하기 때문에 그 사이 발생한 이자를 갚지 못해 연체자로 등록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은행측은 설명했다. 다만 카드 거래가 정지되더라도 연체금액을 갚으면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은행 및 전업계 카드사들은 은행연합회나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해 5만원 이상 연체자에 대한 정보만 공유하고 있어 소액 연체자에 대해서는 회사별로 관리기준이 다르다.

신한카드는 고객평점에 따라 카드거래 정지기준이 조금씩 다르게 적용하는데, 신용도가 가장 낮은 고객이라면 5만원 미만 연체시 10영업일 이후 거래정지 조치를 취한다.

반면 외환은행은 연체금액 1만원 이하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1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거래정지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카드회원 모집에 쓴 돈 1,500억

LG카드 올 상반기 428억 최고

전업계 카드사들이 올해 상반기에 회원 모집 등을 위해 쓴 비용이 1천500억 원에 육박해 2003년 카드 사태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카드사들이 외형 확대를 위해 그만큼 과당 경쟁을 벌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개 전업계 카드사가 상반기에 지출한 모집 비용은 1천486억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41.5% 급증했다.

LG카드가 42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현대카드 307억원, 삼성카드

278억원, 롯데카드 250억원, 신한카드 221억원, 비씨카드 209억 원이었다.

비씨카드의 경우 제휴를 맺은 은행이 주로 회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모집 비용이 미미했다.

이들 카드사의 모집 비용은 상반기 순이익의 1.9~9.3천304억원의 7.7%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상반기 기준으로 모집 비용은 카드사가 회원을 늘리던 2002년 2천531억원을 기록했다가 카드 사태를 맞은 2003년 1천279억원, 2004년 550억원으로 급감한 뒤 2005년 738억원, 2006년 1천500억원으로 증가했다.

/연합뉴스

몸집 불린 공기업 수익성 감소

주택 부채 비율 58% 석탄공사는 자본잠식

한전 영업 이익 급감

공기업들이 외형적 성장은 이뤘지만 수익성은 대부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7일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정부투자기관 경영현황 평가'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년간 13개 정부투자기관의 총자산은 65조7천억원 가량 증가했으나 이 중 부채 증가액이 37조2천억원으로 자본증가액 28조4천900억원을 크게 상회했다.

기관별로는 한국석유공사와 한국토지공사에 제외한 나머지 공기업의 수익성이 모두 떨어졌다.

/연합뉴스

주택공사의 경우 분양 목적 부동산 임대 자산의 급증으로 총자산은 크게 늘어났으나 증가분 가운데 부채비율이 58%를 넘을 만큼 재무건전성이 악화됐고, 석탄공사는 석탄산업 사양화로 자산과 매출이 급감해 6년 연속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전력공사는 매출액이 2001년에 비해 7조1천600억원 가까이 급증했으나 영업이익은 오히려 7천300억원 줄었고,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신설 및 확충으로 인한 부채가 계속 증가해 외부 차입을 늘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공기업들이 택지개발과 임대사업 등을 통한 외형적 몸집 불리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경영합리화를 위한 노력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몰리브덴·금·구리 등 집중탐사

국내 광물 발견 작년 한해 7조원

국제 광물가격 급등으로 버려지거나 미개발 상태였던 국내 매장 광물들의 경제적 가치가 부각되며 탐사가 활발해져 작년 한 해만 7조원어치의 광물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한광업진흥공사(이하 광진공)에 따르면 지난해 금, 은, 구리, 납, 아연, 몰리브덴, 석회석, 벤토나이트 등 8개 광종에 대해 정밀 조사를 벌인 결과 국내에서 발견된 경제성있는 광물은 모두 16억7천만톤으로, 이를 시세로 환산하면 7조원에 이른다.

또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사가 이뤄진 300개 광구에서 모두 48조4천억원어치에 달하는 117억7천만톤의 금속 및 비금속광물 발견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자원부와 광진공은 매년 50개의 광구에 대한 탐사를 벌이고 있으며 올해도 강원도 삼척과 정선 등 7개 지역에 43개 광구에 대한 정밀조사를 완료한 데 이어 연말까지 7개 광구를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국책은행, 산재신청 절반은 '체육행사'

한국은행 등 국책금융기관 직원의 산업재해신청 사유 절반 이상이 체육대회나 축구대회 등 체육행사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목희(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책금융기관 산재요양 신청자 현황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재신청을 받은 국책금융기관 직원 59명 중 31명의 사유가 체육행사 때문이었다. 한국은행은 산재신청 직원 10명 중 5명이 체육행사를 사유로 승인을 받았고, 산업은행도 8명 중 4명이 체육행사와 관련된 이유로 산재신청을 받았다.

이밖에 기업은행은 29명 중 13명이, 기술보증기금은 6명 중 3명이, 신용보증기금은 승인자 4명 모두가 체육행사 관련 사유로 산재신청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사무직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근골격계질환과 관련된 산재는 거의 없었다.

/연합뉴스

로도복권 (제253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자 수
081925313436	33	
등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 일치 2,466,189,525	4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82,206,318	20
3	5개 숫자 일치 1,406,439	1,169
4	4개 숫자 일치 57,604	57,084
5	3개 숫자 일치 5,000	942,682

팝콘복권 (제76회)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	10억	2조 606239
2	2조	606238
3	5억	2조 606240
4	1천만	1등과 조가 다른 번호
5	1백만	각조 59254
6	1만	각조 491
7	2천	각조 52
	1천	각조 82
		각조 0
		각조 9

함께 일합시다

062.JOBKOREA.CO.KR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선보유니텍	관리 기술직 및 생산직 신입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14	051-260-5533
남영건설	남영건설 인제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15	062-360-0700
이인텔레서비스	LG텔레콤 고객센터 정규직 상담사	고졸/경력무관	1600-1800	10/15	062-601-7213
삼원빌딩	라마다 플라자 광주 특급 호텔 신입 및 경력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16	062-717-7000
루키스	2007년도 루키스 신입/경력/경력특례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19	02-368-3813
회인피앤씨	경리업무 및 전산실무시스템사용자 사원	고졸/경력2년	1400~1600	10/19	062-951-3751
대우정공	생산관리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20	062-956-5191
엘리엇인텔리전스	전자공학 전공 관련자 사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20	062-602-7508
수빈이카데미	사무관리직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20	062-232-0064
오뚜기물류서비스	재고관리 및 발송고급무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2000~2200	10/26	062-953-4854
디알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Oracle)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26	062-528-9989
초원문고	도서 입,출고 관리 사원	고졸/경력무관	1000~1200	10/26	062-574-7007
캠팩아시아	캠팩아시아 2007년 하반기 사원	고졸/경력5년	회사내규	10/26	070-7018-0083
서영브라이트스톤	각 부문 신입 및 경력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26	02-3218-1627

(광주지코리아 512-6210 제공)